

##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

진 정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발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21페이지)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첨단돌파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것이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우리 나라를 새 세기 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 살게 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는 무엇보다먼저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이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며 그 발전에 의하여 담보되기때문이다.

과학기술로 경제강국도 문명강국도 건설하여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이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수 있다.

첨단을 돌파하기 위하여서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미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첨단돌파전에서 승리하자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목표를 바로세우고 실현해나가야 한다.

최신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

목표는 보통수준이 아니라 최첨단수준으로 되어야 한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첨단돌파의 전략적목표와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 국방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 적극 일반화하여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우주기술을 비롯한 최첨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첨단돌파를 위한 과학기술발전목표를 바로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분야들을 세계적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중요부문 기술공학들을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기초과학발전에 힘을 넣어 과학기술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강국을 떠받드는 주춧돌이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 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

응용과학부문의 발전은 기초과학부문의 발전을 전제로 하며 기초과학부문의 발전은 응용과학부문의 발전을 적극 추동한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한 기초과학부문에 힘을 넣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리론적기초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초과학부문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절실히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본을 두고 연구를 심화시키며 세계적인 기초과학부문의 발전방향과 현 실태를 장악한데 기초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식의 기초과학리론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부문에서는 기초과목의 내용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원만히 풀수 있도록 원리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내용을 일신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교수사업을 정보기술수단들을 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론교육과 실험실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혁명실천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으로 소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기초과학부문에서 이룩된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제때에 교수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초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단과대학, 학부들에서는 미개척지로 되어있는 분야들을 적극 개척하고 이미 개척되어 활용되고있는 첨단과학의 성과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기초과학연구부문에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새로운 기초과학연구부문들을 개척하고 더욱 발전시키며 첨단기술개발사업을 과학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과학연구부문에서 이룩된 새로운 최첨단과학연구성과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첨단돌파를 우리 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첨단돌파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 식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때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파시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기술적예속은 곧 경제적예속이며 경제적자립은 곧 기술적자립에 의하여 담보된다. 경제강국의 중요한 징표는 주체성과 자립성이며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킨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파동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갈수 있다.

자체의 힘과 지혜로 새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주체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첨단과학기술을 우리 식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 정보화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첨단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지혜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우리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장에 내려가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생산자대중과의 긴밀한 협조밑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그들의 창조력을 적극 발동하여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는 다음으로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적극 다그치는것이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적극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그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이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실천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들에 의하여 추동되기때문이다.

오늘의 시대는 인재들에 의하여 나라의 국력과 경제문화의 발전이 좌우되는 인재중시의 시대이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누구든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없어서는 안될 실력가가 되고 나라가 인재강국이 되어야 경제강국도 문명강국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하여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고 끊임없이 갱신하여 자기의 전공부문에 정통한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육내용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도록 현실성있게 구성하고 부단히 갱신해나가야 한다.

교수방법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을 위주로 하면서 학생들의 창조력을 적극 계발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교수방법을 창조하여야 한다.

중등일반교육기간에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지닌 나라의 쓸모있는 인재로 키울수 있도록 교종체계를 완

비해나가야 한다.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양성의 목적에 맞게 학제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련속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한다.

매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특성에 맞게 학술형인재와 실천형인재로 나누고 그에 맞는 교수내용과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발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자기를 따라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그러자면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관심을 높여 새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교육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현대과학기술을 부단히 배워야 한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들을 늘이고 교육수준을 높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원격교육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하며 텔레비존을 비롯한 대중보도수단을 통한 교육도 잘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일생동안 배우면서 우리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자들은 생산과 관리의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현대과학기술을 배워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창의고안의 명수가 되여야 한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관리운동을 정상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배우고 자기의 능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하여 각 도, 시, 군들에 그물망처럼 뻗어있는 전자도서관들과 정보망들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 기능을 부단히 높여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체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 전민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첨단을 돌파하는 여기에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기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